

근대문화역사 상징 ‘뽕뽕다리’ 다시 세운다

46년만 재건... 내년 8월 준공
옛 느낌 살리고 현대적 디자인
전망대·야간 경관 조명 등 설치
광주전 새로운 랜드마크 기대

광주 근대문화역사의 상징인 ‘뽕뽕다리’가 다시 세워진다.

광주 서구는 1970년대 중반 유실된 발산마을과 임동방직공장을 이어주던 근대문화역사의 상징인 ‘뽕뽕다리’를 다시 세우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착공식은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지역국회의원, 북구정장, 시·구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뽕뽕다리는 과거 임동방직공장과 주거지인 발산부락 등을 연결하는 임시교로

로, 당시 방직공장 직공들을 비롯한 광주 시민의 추억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뽕뽕다리라는 명칭은 구멍이 뽕뽕 뚫린 공사장 안전발판용 철판을 이어 만들어진 다리여서 붙여졌다. 발산마을에서 임동방직공장을 이어주던 이 뽕뽕다리는 전남 방직 여공들의 출퇴근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뽕뽕다리는 지난 1975년 대홍수로 유실됐다. 이후 주민들은 이 다리보다 조금 상류 쪽에 건설된 발산대교를 이용했다.

뽕뽕다리를 다시 세우게 된 계기는 서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거듭난 발산마을 때문이다.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됐던 발산마을은 광주전 뽕뽕다리 건너편 방직공장이 쇠락하면서 발전이 멈췄다. 호황을 누리던 방직공장은 주 생산원인 무명천 광목이 점점 퇴조하면서 급격한 불황을 맞았고, 이에 여공들은 하나둘씩 마을

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뒤로 마을은 계속 어려워졌고, 결국 발산마을은 ‘달동네’가 됐다.

영원히 달동네로 남게될 처지였던 발산마을은 2015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면서 ‘청춘발산마을’로 탈바꿈했다. 기을 어져가는 마을에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손길과 주민들의 참여로 새로운 색깔을 입히면서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

46년 만에 다시 건설되는 발산뽕뽕다리는 이 청춘발산마을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내년 8월 준공되면 발산마을과 더불어 근대산업유산인 임동방직공장을 활용한 문화관광벨트 개발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뽕뽕다리는 옛 느낌을 살리고 심플한 현대적 디자인으로 인도교 중앙부를 휴게·문화공간으로 구상했으며, 임동 천변도로 육교로 연결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와



광주전 발산교 인근 뽕뽕다리 조감도.

/서구 제공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해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다리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새롭게 태어나는 뽕뽕다리는 서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

례인 발산마을, 광주전 수변공원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광주전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서구장학재단, 우수 인재양성 장학생 선발

(재)광주시 서구 장학재단은 지역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2021년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서구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서구 출연금과 지역사회 기부금으로 49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480명에게 4억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고등학생 18명과 대학생 81

명, 학교 밖 청소년 5명을 선발해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은 50만 원, 대학생은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생 선발 공고문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062-360-7245)으로 하면 된다.

/오선우 기자



돌봄이웃 행복 나눔 캠페인

(주)광주신세계는 ‘돌봄이웃을 위한 행복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서구청장실에서 1,000만원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기 기부 챌린지 한 달 만에 성료

저소득 가구 20세대

상생카드 100만 원 전달

광주 서구가 지난 1일 전기 기부 챌린지 ‘건강 백만보, 희망 백만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관내 저소득 가구 20세대에 총 100만 원 가량의 상생카드를 기부했다.

이번 ‘건강 백만보, 희망 백만배’는 지난 7월 20일 서대석 서구청장의 ‘만보 걷고 인증하기’를 시작으로 걷기지도자 및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한달여 만에 완료됐다.

챌린지는 총 100만보를 목표로 만보 이상 걷고 인증 사진을 매일로 전송하면 기부금이 1만 원씩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릴레이로 기부에 동참한 도전자

총 100명, 모아진 기부금은 100만 원에 달했다. 이 기부금은 챌린지 참여자의 이름으로 가구당 5만 원의 상생카드를 20세대에 지원하게 되며, 참여자 개인에게는 기부증서를 발급한다.

전기 기부 챌린지 참여자들은 “걷기를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웃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서 주변에 많이 홍보했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지투리 소식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광주 서구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총 363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해 의견을 접수한다.

2일 서구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절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서구청홈페이지(www.seogu.gwangju.kr/),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람서비스’를 통해 결정·공시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 및 이의신청 기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인프라 확대

광주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인프라를 확대, 초등학교 및 기타 청소년에게도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서구진로센터는 관내 청소년 기관과 연계해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늘렸다.

올해는 토요 체험교실을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 지난 5월 화정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가족공예(그림책)를, 8월에는 서구 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4차 산업과 관련된 진로탐색 프로그램(IOT, 로봇 등)을 3회 운영해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지원이 어려운 경우 가족공예 키트를 제작해 학교 및 유관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AI 선도도시에 발맞춰 다양한 IT기업들과 인프라 구축 및 4차 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아이디어워(War)’ 진행 등 4차 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서구진로센터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4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뉴노멀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세요”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개소
퇴원 후 돌봄서비스 제공

광주 서구가 지난 1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농성동에 케어안심주택을 개소했다.

‘케어안심주택’은 살던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소망을 담아 안전한 주거 환경과 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어르신의 가드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서구는 고령의 무주택 장기입원자나 시설입소자가 퇴원·퇴소를 희망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 계속 시설에 머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와 손잡고 이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했다.

지상 4층의 12호실을 갖춘 케어안심주택은 빌트인 및 고정자 편의시설 설비를 갖춘 독립된 주거공간에 직원 이 상주하며 1대 1로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유공간으로 구성됐다.

영양음식지원, 돌봄택시, 한의사 주치의, 구강케어, 재활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신체·건강·심리를 고려한 육구별 맞춤 통합돌봄서비스(31종)가 제공된다.

아울러 상주 직원과 청년자원봉사자가 주·야간 안전을 살피며, AI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안전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오선우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

보광종합건설(주)